

업계 단합으로 어려움 극복 기대

을유년 한해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병술년 새해가 찾아옵니다. 지난 한해는 포장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토로할 정도로 극심한 내수 부진과 끝없이 오르는 유가로 인한 원, 부자재 값의 앙등, 유저층의 판매부진으로 인한 가격인하 압력 등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로 감감한 긴 터널을 한없이 걸어가는 기분으로 쫓기듯 지나간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되어 집니다.

더구나 우리 포장 업체들의 매출이 둔화되면서 살아남기 위해 저가 공세를 일층 강화한 일부 업체들의 공세로 인하여 그나마 제값 받기에도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밤잠 이루지 못하는 연포장 업체 경영자들의 한숨 소리가 높아 졌으며 이로 인한 우리 업체들의 피해는 가늠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수록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연포장 업체끼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며 서로 의논하고 격려해 주면서 다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이正道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애를 쓰다가는 결국 다같이 파멸을 맞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겪어 왔으며 뼈저린 체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인 받는 포장업계의 대변인인 (사)한국포장협회의 기치아래 우리 다같이 힘을 뭉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방법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서로 협조 한다면 새해에는 그동안의 기나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장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라는 멋진 대안이 있습니다.

이제 부터라도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가짐으로 다같이 힘을 뭉칩시다. 그리고 기대의 땅인 미래로 힘차게 도약 합시다!

지난 한해 동안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협회 김선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병술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사업과 가정에 밝은 빛살이 비추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 영 옥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장